

농업대변화 원년

일자리를 대폭 늘리고

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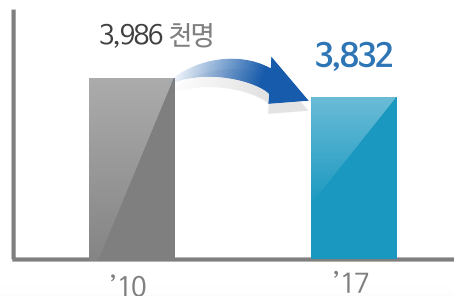
2018.1.18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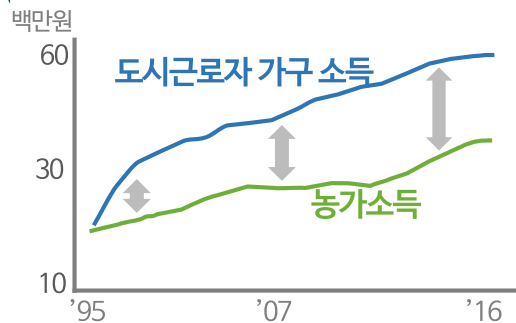
농림축산식품부

농식품 부문 일자리와 농가소득의 현주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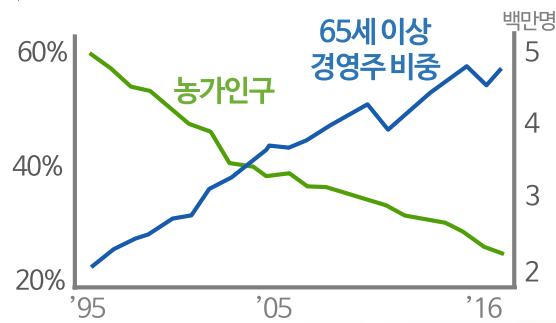
농식품 취업자수 정체



도농간 소득격차 확대



농가인구 감소·고령화



그러나 희망과 기회

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

- 농지규모 보다
과학·영농기술이 경쟁력 좌우

도시를 떠나 농촌으로

- '16년 11만명 농촌 순유입
- 청년 귀농 1,340가구

3만불 시대 국민 삶의 변화

- 농촌 관광 11백만명 시대
- 반려동물 6조원 전망
- 말산업 4.2조원 전망

농식품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



소득주도 성장 견인

농업혁신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



농가소득 안정

3만불 시대에 걸맞은 농촌 구현



국민 삶의 질 향상

1.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

“ 올해 일자리 3만 3천개, 22년까지 17만개 창출 ”

청년 창업

청년창업농	1,800
스마트팜	860
외식창업인큐베이팅	200



신수요 일자리

반려동물	1,120
말산업	1,000
농촌융복합산업	730



고부가 미래산업

종자·농생명소재	140
곤충	280
가정간편식 등	3,800
첨단기자재	76



산림 및 기타

공공일자리	15,000
산림복지전문업 등	3,000
사회적경제등	1,000



R&D 바우처, 농식품 벤처 펀드, 농신보 보증, 정책자금 우대 금리 등 적극 지원

청년 창업붐을 일으키겠습니다.

① 청년농업인 정착부터 성장까지 종합 지원하겠습니다.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1,800명 ➡ '22) 10,000명

역량있는 청년농업인 1,200명 선발(월 최대 100만원 지원)

자금

농신보 우대 보증
보증한도 (2억원 ➡ 3)
보증비율 (90% ➡ 95)



농지

농지은행 비축농지
최우선 임대 지원
(임대료 최대 80% 감면)



교육

경영실습농장(30개소)
농장당 3~5명이
최대 2년 이용



'22년까지 청년 경영주 비율 1.4% 이상으로 확대 (현 추세 시 0.5%)

②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860명 → '22) 4,820명



스마트 온실(누적) ('17) 4,000ha ➡ ('18) 4,510 ➡ ('22) 7,000



스마트 축사(누적) ('17) 750호 ➡ ('18) 1,350 ➡ ('22) 5,750

창업

‘스마트팜 창업보육 센터’를 통해 창업농 양성

* 팀단위 공동교육·실습·창업, 재배 기술, 경영까지 단계적 교육·실습

성장

R&D 바우처 및 종합자금, 벤처펀드,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

재도전

경영회생자금 지원, 농지매입 후 재임대

창업보육·생산기반 통합 ‘스마트팜 혁신밸리’ 조성('22년까지 4개소)

➡ 빅데이터 분석, S/W, 기자재 등 연관산업까지 효과 파급



③ 다양한 식품·외식의 창업과 취업을 돕겠습니다.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1,638명 ➡ '22) 17,340명

식품·외식창업 공간 제공

- 조리시설이 갖춰진 매장 무료임대
➔ 메뉴개발부터 매장운영까지
실전경험(5개소)
- ‘창업지원 Lab’ 확대 운영(16개팀)
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·장비를
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기회 제공



식품 가공산업 활성화

〈식육즉석판매가공업〉

- * 정육점에서 햄, 소시지 등을 가공·판매
- 창업·업종 전환을 위한 경영컨설팅
(50개소), 소비자단체 인증(10개소)
- 시설·운영자금 지원(개소당 5억원)

〈쌀가공 산업〉

- 고품질 쌀 가루 생산 및 식품업체와
연계한 제품 개발
- * 시장규모: ('16) 4.4조원 → ('22) 6.2



해외 인턴 파견

- 해외 진출 한식당·외식기업에
청년 취업 지원
-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운영
-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
청년 인턴 파견



3만불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.

1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.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1,120명 ➡ '22) 18,050명

자격증 신설 · 공인

- 행동교정 분야 자격, 동물간호 복지사 신설
- 애견 미용 분야 민간 자격 국가 공인



서비스업 체계화

- 소규모 애견 브리더(breeder), 고양이 캐터리(cattery) 등 소규모 생산자 허가
- 공공장묘 시설 설치(2개소)



펫사료 산업 육성

-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추진
- 고부가가치성 사료 개발 R&D
-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



반려동물 관련 산업법 제정 추진

- 동물 서비스업 육성
- 교육·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
- 창업 및 우수업체 지원근거 마련



반려동물 시장규모 ('17) 2.1조원 ➡ ('22) 6조원

② 생활 속 승마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.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1,000명 ➡ '22) 6,500명

기반조성

- 승마시설 개선(15개소)
- 농어촌형 승마길 확대
('17:57km ➡ '21:500)
- 말산업 특구 신규 지정(2개소)



저변확대

- 학생승마 체험 확대(7만명)
- 유소년 승마단 확대(24개소)
- 자유학년제를 활용한
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



인력양성

- 승마지도사 국가 자격화
-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
말산업 인턴십 지원
- 말산업 종사자 보수 교육



말 산업 시장규모 ('16) 3.4조원 ➡ ('22) 4.2조원

③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에 맞는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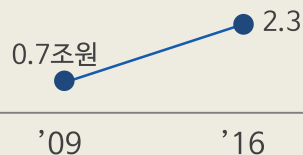


| 일자리 목표 | '18) 3,800명 → '22) 24,130명

가정간편식(HMR)

- 신제품 개발, 품질관리 및 고급화 R&D 강화
- 식재료 사용과 연계한 원료구매 및 마케팅자금 지원
- 혼밥·급식시장 성장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보 제공 강화

〈가정간편식 시장 규모〉



바이오·고령친화식품

-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된 식품에 대한 신고·표시제 도입 추진
- 식품첨가물·식품용 효소 등 바이오식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
- 발효식품 우량 종균 개발·보급
- 고령자 맞춤형 식품기술 개발 (경도, 영양 성분 등 표시)



푸드테크·포장재산업

- 식품산업과 ICT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·마케팅 등 지원
- 기존 식품소재를 대체하는 식품(식물성 고기 등) 및 스마트 포장기술 연구·개발



* (스마트포장 사례) 김치 발효과정에서 가스만 배출되고 액체투과는 방지하여 신선도 유지

4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.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815명 → '22) 7,384명

농촌관광 전문화 · 다양화

- 농촌관광 해설사 도입
- 청년층을 관광 전문인력으로 육성
- 중학교 자유학년제 및 초등학교 체험학습 연계 강화(55천명)
- 동식물 · 곤충 활용 치유 프로그램 개발(10개소)



융복합산업 육성

-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확대
* ('17) 1,397개소 → ('18) 1,500
-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
('17: 69개소 → '18: 74) 등
창업 보육 지원 강화
-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를
지역 특화산업 거점으로 육성



지역 푸드플랜 확산

- 지역단위 농업생산-소비의
선순환 체계 구축
- 선도 지자체 선정 지원(8개소)
-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
민관 거버넌스 조직 육성

완주사례

지역내 1,500 중소농 참여, 12개 로컬푸드
매장에 신선한 농산물 공급, 지역일자리 창출



5 산림을 활용한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18,899명 ➡ '22) 60,178명

산림 특화 전문가 양성

- 산림치유, 유아 숲교육 등
산림복지 전문업 육성(350개)
-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(6월)



산림자원 산업화

- 지역의 목재 · 임산물 활용
클러스터 육성(12개소)
- 산림일자리 발전소 신설
- 사회적 경제 방식 일자리 창출
중간 지원 조직



공공부문 일자리 창출

- 산불 · 산사태 등 재해 분야
인력 확충
-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
(공공산림가꾸기, 도시숲 관리 등)



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.

① 종자·농생명 소재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.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140명 → '22) 994명

종자산업 기반 강화

- 2단계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국산우수품종 수출 확대(6천만불)
- 해외 전시포 운영(5개국), 국제 종자 박람회 개최
-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설립(~'19)



기능성 소재 개발

- 7대 중점분야 중심의 대규모 R&D 추진
 - * 천연 고분자, 항균, 건강증진, 사료첨가제, 동물백신, 생물농약, 친환경 비료
- 〈누에 실크 인공고막〉 기술개발 및 실용화('10~'17)를 거쳐 30억 규모의 시장창출 기대



미생물 산업화

- 농식품 미생물 산업화 지원 확대
 - * 프로바이오틱스, 발효식품, 천연살충제, 면역강화제, 축산악취 저감제
-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
 - * 관련기업에 연구장비대여, 시제품제작, 인력양성 지원



②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280명 → '22) 1,400명

생산·보급 기반 구축

- 무병·우량 곤충 보급을 위한 곤충종자 보급센터 구축(~'19)
- 곤충 전문인력 양성 기관 확대('17: 15개 → '18: 20)
- 광역단위 곤충자원센터를 통해 농가종합지원(4개소)
-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('18)
 - * 곤충 대량 사육·가공·제품 개발



신규 수요 창출

-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 사료 개발
-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 확대(7종 → 10)
- 곤충요리 경연대회 등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



③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과학영농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.



| 일자리 목표 | '18) 95명 → '22) 1,920명

빅데이터 기술 활용

- 영상정보 등 활용, 농가생육·환경 데이터 수집 확대
* '17: 200호 → '22: 800
- 정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생육환경 관리 프로그램 개발
- 농식품데이터를 민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'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' 구축



첨단 농기자재 보급 확대

- 자율주행트랙터, 정밀파종기 등 R&D투자 확대('19년 상용화 목표)
- 드론·인공위성 영상정보를 활용한 수급 분석기술 개발
- 주산지 중심 발작물 파종·수확기 집중 보급
* '18: 65개소 → '22: 240
- 전문방제업종 신설 등 방제 서비스 산업 육성



스마트 유통시스템 도입

- 축산물등급 영상판정 기능을 갖춘 스마트 축산물종합처리장 확산
* '17: 1개소 → '18: 3
- 과일 비파괴 당도 측정기 정확도 제고 추진
- 원산지 단속·이력추적 등에 블록 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



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.

농신보·자금

- 동일인 보증한도(개인 10억원)와 전액보증 한도(2천만원) 상향 추진
-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(30억원) 등 신규 지원



R & D

- R&D 추진체계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
- 수요자가 직접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R&D바우처 확대
- 정부·농협 공동 R&D매칭펀드 조성(47억원)



벤처 창업 지원

- 벤처창업인턴제, 찾아가는 창업보육(100개소)
- 벤처 등 농식품 펀드 조성(연 500억원 이상)
- 벤처창업 특화센터(5개소)를 통해 자금·기술·마케팅 밀착 지원



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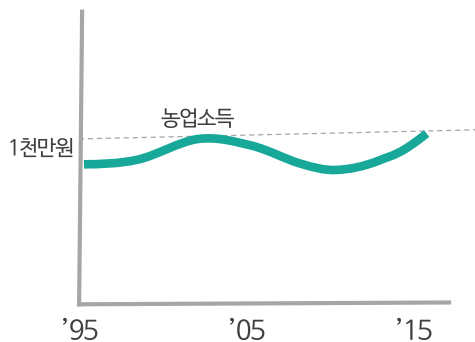
-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, 맞춤형 상품개발 등 가공 식품과 농자재 수출지원 확대
- '신 남방 정책'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
- 청년인턴, 시장개척단 파견 시장조사



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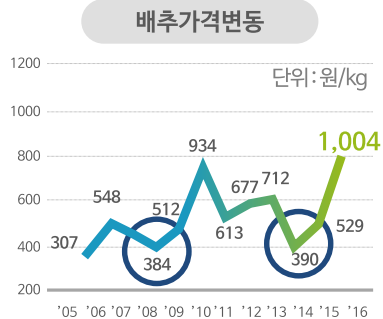
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.

소득 정체



• 농업 소득 1천만원 수준 정체

가격 위험



•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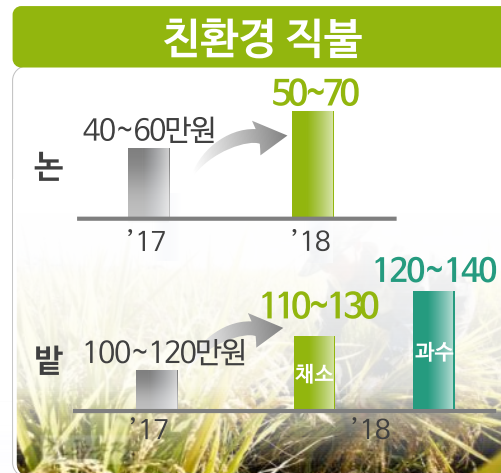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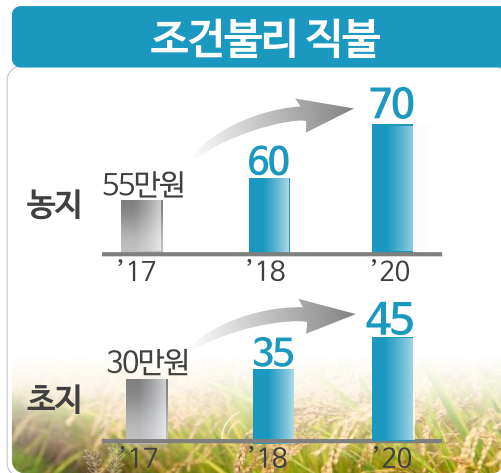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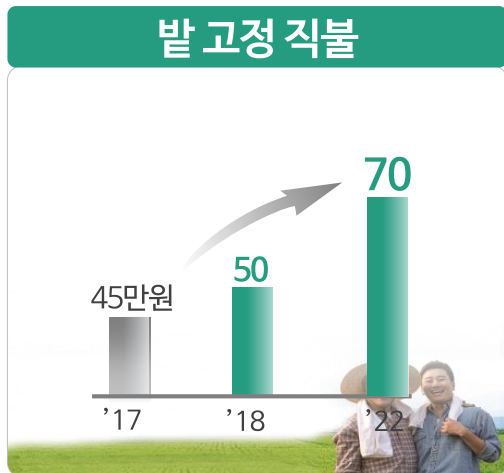
재해, 사고 위험



• 우박·가뭄 등 피해 29,971ha('17)

직불금을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을 높이겠습니다.

직불금 단가 인상(ha당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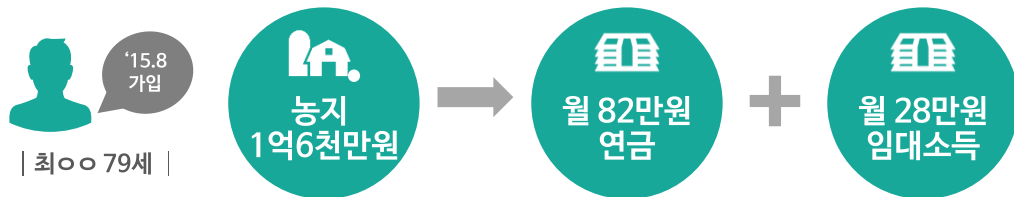
* 쌀고정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속 인상 (ha당 5만원)

기존 직불을 공익형 직불로 확대·개편하고, 농업인의 환경보전 등 상호준수의무 강화

월 100만원 농지연금으로 고령농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.

☞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

- (사례) 1억6천만원 상당 농지 가입 → 월 82만원 연금 수령, 월 28만원 임대소득 창출



☞ 제도개선, 맞춤형 홍보로 가입 확대('17: 8,631명 ➡ '18: 12,000)

- 농지 감정평가액 상향조정 추진(80% → 90), 월 지급금 12.5% 증가 효과
- 도시 자녀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



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.

채소가격안정제

무, 배추, 마늘, 양파, 고추, 대파

- 주요 채소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되, 평년가격의 80%를 보장

〈대상품목과 물량확대〉



생산자단체 조직화

- 주산지 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전국단위 품목별 조직화
- 재배면적·출하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체계화

* 생산자 조직 확대(주산지협의회: 4개 품목 → 11, 의무자조금 단체: 8개 → 11)

- 빅데이터·드론 등 첨단기기 활용, 농업관측 고도화
-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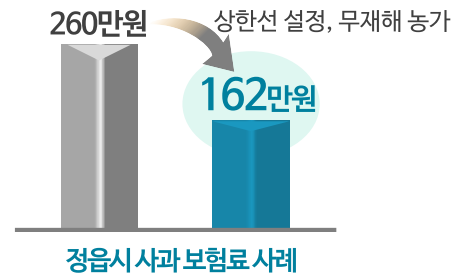


농업인의 자연재해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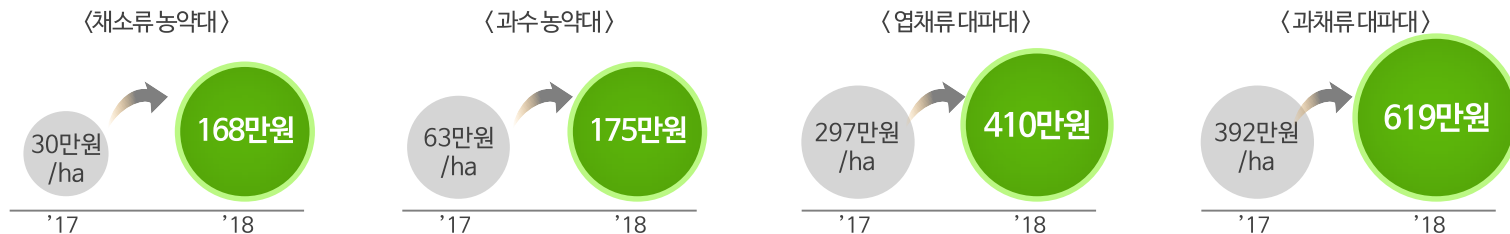
농업재해보험

-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품목(사과·배·벼)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
- 무재해 농가 보험료 할인(5%)



재해복구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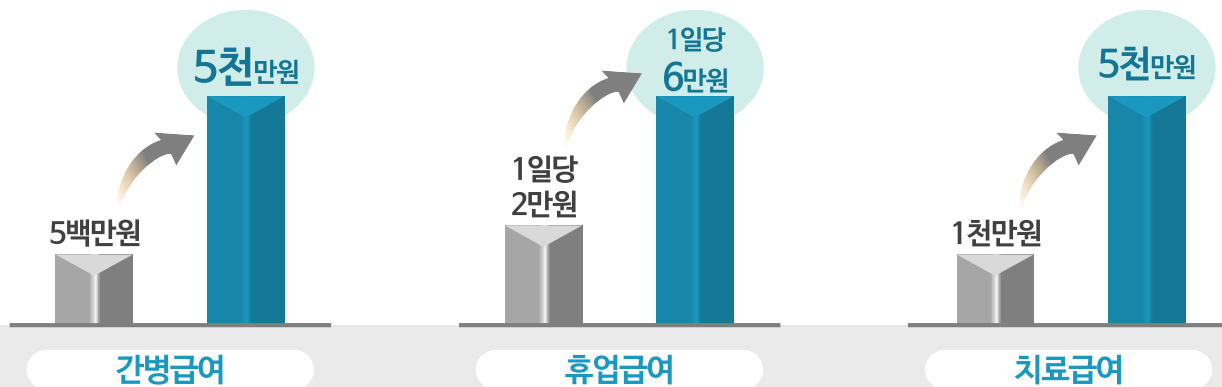
- 농약대·대파대 지원단가 대폭 인상(평균3배)



-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액 포함 방안 관계부처 협의('18하반기)

농업인 안전보험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농업인은 대부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, 농업분야 재해율은 산업분야의 2배 수준
- 보험료율 산출방식 개선 ➡ 보험료 '17년 대비 10% 인하
-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강화한 신상품 개발 · 보급



- 안전보험 영업이익 일부를 적립하여 보험료 인상요인 최소화



농촌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
기초서비스 접근성 제고

-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전체 군 지역 (82개)으로 확산
- 소규모 어린이집 확대 (52개소)
- 농촌지역 분만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



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

- 영농도우미 (15천가구), 행복나눔이 (14천가구) 지원
-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 (5천명)



여성농업인 지원 강화

- 다문화 여성 1:1 후견인제 도입 (1천명)
-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 확산 유도
-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
* 배우자 동의없이 등록 가능
- 농협 조합원 및 임원에 여성 농업인 참여 비율 제고



사회적 농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.

● 사회적농업 실천조직(9개소)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(5억원)

- 농촌지역 장애인,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, 재활, 교육서비스 제공

● 한농대에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, 인력양성

● 로컬푸드직매장 등 판로 확보 및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지원 방안 마련

● ‘사회적 농업법’ 제정 추진



홍성행복농장

의사·농업인·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
설립하여 농업을 활용한 장애인
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교육을
수료한 장애인 중 일부를 농장에서 고용



영광여민동락 공동체

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
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
농산물 생산·가공과 관련된
노인일자리 사업 운영



2018년 농림축산식품 모든 공직자는

농업의 **대변화**를 이끌어 내고

일자리 창출과 **소득주도 성장**을 **전인**해 나가겠습니다.

- 감사합니다 -



농림축산식품부